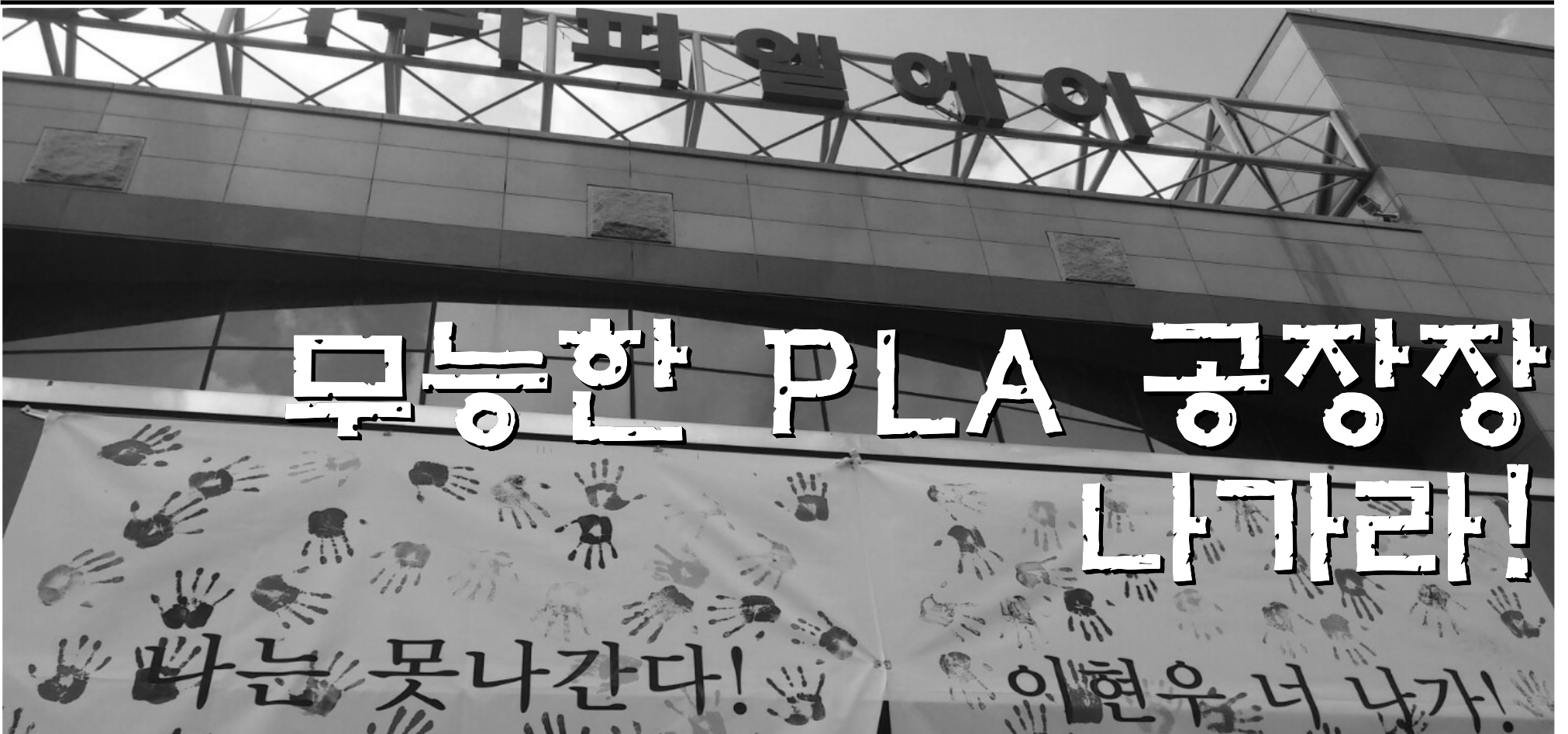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7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9월 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조합원

내쫓을 생각에만

골몰하는 공장장

임금체불, 자진사퇴 유도, 희망퇴직

PLA자본이 작년부터 갖가지 비열한 작업들을 계속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임금체불로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올해 초에는 휴, 폐업을 운운하며 조합원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에 의지없는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더해져 조합원들은 스스로 공장을 떠났다. 113명이던 조합원은 64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남은 조합원들은 무능한 경영진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고 비대위를 구성해 싸워왔다. 그러자 PLA자본은 위로금 약 1,000만원을 더해 희망퇴직을 발표했다.

PLA자본의 의도는 민주노조 파괴

작년부터 이어진 PLA자본의 농간들을 살펴보면 목적은 민주노조 뺏개기다. 자발적인 퇴사로 어느정도 인원감축에 성공했지만 남은 조합원들이 곳곳이 버티자 이번엔 위로금이라는 당근을 찰끔 내밀었다. 그렇게 조합원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값싸게 공장을 운영할 생각만 가득하다.

그러나 이번 희망퇴직은 대실패다. 희망퇴직 공고가 나자마자 전 조합원들은 공장장실 항의농성을 시작했고 일주일간의 전면파업으로 맞섰다. 공장을 떠나야 할 것은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현우 공장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맞서 싸웠다. 결국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6명의 조합원만이 희망퇴직에 응했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일주일 간의 싸움을 통해 더 끈끈하게 뭉치고 단결했다. 조합원들의 뜻은 확고하고 분명하다. 이 공장을 떠날 마음이 없다. 이제 PLA자본은 무능한 공장장을 갈아치우고 경영정상화에 대한 답을 내와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로 뭉치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동안 계속된 자본의 공작으로 PLA지회가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비대위 구성 이후에 단단히 뭉쳐서 금속노조를 지켜왔고, 이번 희망퇴직 투쟁으로 더 굳세게 뭉쳤다. 아직 자본의 공세는 끝나지 않았다. 분명 끝없이 도발을 해올 것이고, 어떻게든 위기감을 조성해서 조합원들을 흔들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는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뭉치면 산다!

우리는 못나간다!

이현우 공장장 너나 나가!

어용노조 수난시대

그 실체가 드러난 어용노조가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보쉬전장, 콘티넨탈의 어용노조가 똑같은 수순을 밟으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연이어 찬반투표에서 부결되고 있다.

보쉬전장 어용노조가 휴가 직전 타결을 위해 발버둥을 치다 2차례의 부결을 맞으며 휘청거렸다. 그리고 이번에 콘티넨탈 어용노조가 또다시 70% 가까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다. 어용노조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보쉬전장 어용노조 위원장은 두차례의 부결사태 이후에도 곳곳이 자리를 지키다가 28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아마 콘티넨탈 어용노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용노조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쟁의행위 없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찾겠다고 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쟁의행위를 포기하고 어떻게 자본과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겠다고 건가? 온갖 최첨단 고가의 무기로 무장한 적들에게 우리는 빈손이라고 선언하고 싸우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어용노조의 실체가 날날이 드러날 수록 금속노조로 단결해야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가 뭉쳐서 싸워야 한다. 애초부터 싸울 생각이 없는 어용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가 모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아래 국민대책회의)는 8월30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특별법 제정하라. 청와대 응답하라. 8.30 국민대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까지 아흐레째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인 김영오 조합원(충남지부 명신지회)이 8월28일 건강 악화와 가족들의 설득으로 46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 중단 이후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을 벌이고 5대 종단이 종교행사와 단식 노숙농성을 벌이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8월30일까지 동조단식에 참여한 시민이 2만7천 여 명이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참사가 벌어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제야 가족과 면담을 했지만 수사권, 기소권 보장 등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위원장은 “가족들은 지치지 않겠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며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조금만 더 함께해달라. 가족들도 더 힘 내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려는 시민들을 불법으로 막았다. 경찰은 이미 허가가 난 행사임에도 국민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수차례 불법집회 운운하며 집회를 방해했다. 국민대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18시30분 경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하자 광장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인근 도로와 청운동사무소로 가는 인도에 병력을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날 21시 경 청운동사무소 앞에 도착한 시민들은 농성 중인 가족들을 만나 아픔을 나누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라"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사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조 지도부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압박 등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전교조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전교조에 따르면 검찰은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아무개 교사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전임자 37명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교조는 김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선언 참가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고, 조퇴는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교조 지도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mcool@naver.com



<8.27 PLA전면파업_현수막 만들기>



<8.27 PLA전면파업_결의대회>



<8.27 노조파괴 분쇄 총청권 결의대회>



<8.27 노조파괴 분쇄 총청권 결의대회>